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동, 입찰의 신속 · 투명성 제고

조달청은 10월부터 3천만원 미만 물품구매나 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 등 소액입찰에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 9월 19일 한국증권전산(주) 및 한국정보인증(주) 등과 「전자입찰공인인증협정」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전자인증 사용자 등록에 들어갔다.

전자입찰시스템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확인부터 투찰, 개찰, 낙찰공고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입찰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서비스 적용하고 국가 공인 암호화 절차 적용 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전자입찰시스템은 조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참여 가능하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과 같은 수준에서 공고 및 개찰 등 모든 입찰업무 수행 가능하고 조달청 외에 다른 기관입찰에만 참여하던 업체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만으로 전자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입찰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인증 사용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조달청의 전자입찰에 업체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알아본다.

1) 전자입찰 시스템 기본 운영 모델

e-mail을 주고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찰업체는 조달청에 인터넷을 통해 입찰서를 전송하면 조달청은 온라인상에서 개찰→낙찰자 선정→공개를 진행한다.

조달청은 기존 입찰방식도 수용, 인터넷을 통한 입찰만이 아니라 OMR카드나 우편입찰 등도 가능토록 시스템의 기술적 환경을 구축키로 했다.

2) 전자입찰 진행절차

먼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sarok.go.kr)에 입찰정보 공고(관보 공고 병행)한다.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이를 조회하고 홈페이지 상에서 입찰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입찰서를 작성하면 된다.

응찰업체는 개찰시간 전에 전자입찰서를 조달청에 전송해야 한다. 업체가 전송한 전자입찰서를 조달청은 입찰관리용 메인컴퓨터에 저장, 보관한다.

개찰시간이 되면 입찰집행관은 메인컴퓨터에서 개인PC로 입찰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개찰→낙찰자 선정→낙찰결과 인터넷 공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로그파일 등을 통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이 전자적으로 보장된다.

3)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대책

입찰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안성의 확보를 위해 입찰 건건마다 업체별로 입찰용 암호키가 제공(입찰서 양식과 함께 다운로드)된다. 입찰서 제출을 위한 사용자 접속 과정에서 사용자 인증 확인이 이루어진다. 개찰 과정에서도 입찰집행관이 별도의 개찰용 암호키를 적용(국가정보원이 승인한 국가기관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한다.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업무용 및 개찰용 메인컴퓨터가 독립 운영된다. 다른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입찰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4) 사용자 대비 사항

조달청은 전자입찰 과정에서 예가추첨문제, 동가 발생시 처리문제 등 전자입찰 관련 각종 제도 및 절차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전자입찰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전산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개인용PC를 갖춰야 하며 안전성 있는 인터넷 접속환경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1) 필수장비

① 웹브라우저(IE5.0 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PC

② 인터넷 접속환경(56Kb 모뎀 환경 이상)

(2) 권장 장비

①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고속 접속환경

② 스마트카드 및 카드 Reader/Writer(지정 공인인증기관 규격)

공인인증서(전자형태)는 기존의 개인인감과 같은 것으로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 항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디스켓이나 PC하드디스크에 보관(저장)할 수도 있으나 안전성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스마트카드 및 부수장비는 각 공인인증기관의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3) 전자입찰 참가자격

전자입찰을 하려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전자입찰용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조달청 안내에 따라 ID 및 비밀번호를 신청(온라인 또는 고객상담실 방문 등록)해야 한다. 기존 조달청 홈페이지 등록 업체로서 ID를 갖고 있어도 전자입찰용 ID는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조달청 비등록 업체(타기관 등록업체 포함)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해야하는데 향후 조달청 안내에 따라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조달청은 철도청 등 대규모 공공기관과 등록업체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비등록 업체는 조달청 등록후 기존 조달청 등록업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찰용 ID 및 비밀번호를 신청하면 된다.

조달청은 업체들이 전자입찰에 대해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갖지말고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5) 이용자 등록 절차

(1) 등록업체 확인

①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ebid.go.kr) →이용자 등록 →등록업체 확인

②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 입력 후 확인

등록정보가 틀릴 경우 반드시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청, 출장소의 고객상담실에 문의하여 수정해야 한다.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입찰참가 등록이 불가능하다.

(2) 전자입찰 이용약관(입찰자용) 확인

조달청과 등록한 입찰자의 권리·의무사항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용약관이다. 등록 희망업체는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등록한다.

① 약관 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를 눌러 계속 진행 → 다음화면(전자입찰 업체 등록)으로 자동연결

② 등록절차 중지 및 초기화면 이동시 취소됨

(3)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

기존 등록정보 외에 신청자 인정사항, 대표자 메일 주소 등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확인한다.

① 필수 입력사항

- 업체명(영문) : 영문 업체명을 입력
- 대표자 메일 주소 : 입찰 담당자 메일 외에 기업에서 항상 연락가능한 e-mail 주소

를 입력
- 신청자 정보 : 전자입찰 인증서 발급 신청자 정보
-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을 공인인증기관 선택
- 수수료 지급정보(지불방법, 은행/카드, 계좌번호 등)
  ·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수수료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인증수수료는 조달청과의 협정에 의해 향후 6개월간 무료이나 추후 공 인인증기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함

② 입력완료 후 확인→정상처리된 경우 정상처리 메시지 화면이 나타난다.

* 브라우저의 파일→인쇄를 선택하여 반드시 등록내용을 인쇄·보관
- 인증서 발급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를 저장(스마트카드, PC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 닫기를 누르면 등록절차가 종료되며 나중에 전자입찰 홈페이지→인증서 발급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저장 가능

* 공인인증기관별 참조 번호 / 인가코드 유효기간 확인

(4) 인증서 발급

종전의 인감증명 발급과 같은 기능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저장하는 기능이다.

① 3)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에서 인증서 발급을 선택하거나 참조번호/인가코드 수령 후 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은 등록희망 업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인증서 발급을 선택하면 아래 화면으로 이동

② 3)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에서 인쇄하여 보관중인 등록내용(참조번호, 인가코드) 입력

③ 비밀번호 : 8자리 이상으로 숫자 및 영문 대소문자 각1자 이상 혼용(한글불가)

* 등록내용을 분실하였을 경우 선택한 인증기관 홈페이지로 문의

④ 확인 → 공인인증서를 화면안내에 따라 개인 저장장치에 저장

* 스마트카드에 인증서를 저장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 규격의 스마트카드와 스마트카드 Reader/Writer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 발급받은 전자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종류에 따라 기업의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본 등록기능을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전자입찰 등 조달청과의 전자거래를 위해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① 기존 공인인증서 보유업체는 전자입찰 홈페이지 → 이용자등록 → 인증서 확인을 선택하면 화면으로 이동한다.

② 화면 안내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장치(디스켓, 스마트카드)를 준비, 확인을 선택한다.

6) 도입 의의와 기대효과

전자입찰시스템은 이미 구축·운영중인 EDI시스템과 연계, 입찰공고 및 규격 확인에서부터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달청에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개찰·낙찰자 선정과 공개과정이 온라인화를 통해 실시간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온라인 입찰진행으로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입찰집행관의 실수나 입찰장에서의 담합의혹 등 인적요소에 의한 불확실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자입찰시스템을 계기로 산업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적 효율성 증대로 가져올 전망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전자입찰을 도입·운용하고 있는 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의 일부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